

개화기 소설의 장르 시론

황 순 재*

目 次

- | | |
|-------------------|----------|
| 1. 들어가기 | (2) 담화소설 |
| 2. 개화기 소설의 양식적 특징 | ① 담화적 형태 |
| (1) 전기소설 | ② 담화적 전략 |
| ① 전기적 구성 | 3. 마무리 |
| ② 논설적 어조의 변용 | |

1. 들어가기

개화기 소설은 봉건적 가치체계를 개량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했던 민족주의자들을 중심한 애국계몽사상,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표출된 민중적 혁명사상, 사회내적 모순의 실용적 해결을 통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던 실학사상, 그리고 선진적 자본가 계급에 의해 외세의존적 급진적인 극단적 개화사상 등이 혼류된 채 표류하던 과도기적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개화기 문학 중 서사적 양식들을 지칭한다. 개화기라는 격변의 시대는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을 표출하며 동시에 대중 독자들을 계몽하기에 가장 적절한 양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개화기 소설이다. 신식활자를 이용한 활자본에 의한 출판물들의 출현과 신문 잡지류에 대한 독자층의 확대 등에 힘입어 개화기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소설은 다양한 개화기 사상을 대중 독자층 깊숙이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양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장르적 인식의 결여는 개화기 소설을 개방적이고 비순수한 형태로서 존재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화기 소설의 하위양식들은 소설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뿐, 도리어 역사나 전기 혹은 논설적 요소가 극단적으로 강화된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개화기 소설을 고소설의 발전적 계승으로 또는 근대소설의 출발로 보든, 소설이 아닌 산문체나 논설양식으로 보든, 문학사적 측면에서 개화기가 봉건주의시대와 근대적 자본주의시대의 과도기적 시대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개화기 소설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서사물들에 대한 철저한 양식적 규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때 비로소 문학사의 연속성 문제에 대한 제반 논의도 일관성을 가질 것이며, 개화기 소설의 문학적 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도 객관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 작품들은, 개화기에 공존했던 작품들 중 19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1920년대까지 출간된 방각본 구소설¹⁾들과 이인직의 「혈의누」를 필두로 나타나는 신소설류들을 제외한 이른바 역사전기적 소설, 토론체 소설, 정치소설 등으로 일컬어지는 작품들 중 대표성을 가지는 일부 작품들이다. 물론 되도록 많은 작품들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장르인 개화기 소설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개화기 소설의 양식화 작업을 통한 장르적 접근에 그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작품 선정상의 한계도 어느 정도 상쇄되리라 생각한다.

2. 개화기 소설의 양식적 특징

전통적·봉건적인 구질서와 근대적·시민적인 신질서의 대립양상이라는 도식적 관점으로 개화기를 바라본다면 개화기 소설 역시 이러한 도식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개화기 시대는 과도기적 성격에 부합되도록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 제2판, (지식산업사, 1989) pp. 326~345. 참조.

사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띠고 있다. 특히 소설에 있어서도 이 다양성은 마찬가지로, 이는 작가들이 지닌 사상적 다양성과 독자물의 기호적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개화기 소설은 주지하듯이 미적 양식보다 사상성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자각에서 창작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효과적 전달 곧 독자 지향성은 독자물의 기호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에 작가는 사상성만을 고집할 수 없었다. 소설적 흥미를 위한 미적 양식에 대한 작가적 노력은 양식상 점진적 변모를 통해 구현된다.

이른바 신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906년을 전후하여 소설의 미적 양식에 대해 상대적 의식화가 강화되었다고 본다면, 개화기 소설은 먼저 크게 이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논자들에 의해서 서사성이 부정되기도 하는, 신소설 이전에 나타난 개화기 소설들은 보여주기(showing)는 거의 무시된 과도한 말한기(telling)에 의한 주석(diegesis)적 양식에 속한다. 곧 신채호·박은식의 전기소설과 그의 신문에 연재된 전기소설, 당대의 정치·사회적인 비평의 성격을 갖는 담화(discourse) 소설들이 속한다. 물론 이들 중 담화소설에 속하는 적지 않은 소설들이 토론회나 연설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말하기가 아닌 보여주기에 대한 소박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행위화로써 구현되지 못하고 단지 특정한 인물을 통해 발화된 관념적 언술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주석적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인적 이후의 신소설류는 소설의 미적 구조와 허구성의 강조에 대한 자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방(mimesis)적 양식에 속하는 일종의 사건소설이다. 여기서 사건소설은 카이저의 분류대로 형상소설·공간소설과 대비되는 양식명이기보다, 사건 진행을 통해 텍스트적 국면 곧 서사적 구조화에 의해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전기소설·담화소설과 대비되는 양식명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소설의 장르적 변이태로 다양하게 구현된 개화기 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편의적 또는 상대적인 것이다. 주지하듯이 서사는 제시점의 범위에 있어서 말하기와 보여주기라는 양극단의 혼합화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르적 혼류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개화기 소설을 고찰함에 있어서 기술적 장르(theoretical genre)로써가 아닌, 역사적 장르(hi-

historical genre)²⁾로서 파악함을 뜻한다.

(1) 전기소설

대개 작가들이 애국계몽운동가들이던 전기소설은 교도적·효용론적 관점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개화기 특유의 서사장르이다. 그래서 더러는 경험적 서사체,³⁾ 교술문학⁴⁾이라는 산문양식에 포함시키게 된 것도 시대가 요청한 주제적 성격의 과잉으로 인해 소설적 형상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작품들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최소한의 소설적 자질들에 대해 우선 규명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식적 특징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전기적 구성

신채호의 「李舜臣傳」·「乙支文德」·「崔都統傳」, 장지연의 「익국부인전」, 박은식의 「泉蓋蘇文傳」, 우기선의 「姜邯贊傳」,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의티리국 아마치전」 등은 모두 인물의 출생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 시간에 의한 전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원래 전기라는 용어는 인물의 일생을 묘사하는 傳과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는 記를 합친한 것으로, 작가가 생동하는 문장으로 어떤 인물에 대한 일생동안의 진실된 행적과 성격을 묘사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진실된 행적과 성격을 자술한 것을 뜻한다.⁵⁾ 이러한 전기의 서술구조를 바탕으로 한 전기소설들은 대개 역사적 전쟁을 중심사건으로 하면서 애국적 민족의식의 발로인 영웅관이 반영된 것들이다.

먼저 「乙支文德」은 을지문덕 이전의 韓漢 관계를 삼한시대부터 시작해서

2) Tzvetan Todorov. The Fantastic (Richard Howard역, Cornell Univ., 1978.), pp. 13~15, 19~21. 참조 [문학적 이론으로부터 연역된 기술적 장르와는 달리, 역사적 장르는 문학적 현상 곧 리얼리티의 관찰로부터 귀납된 통시적 고찰이다.]

김준오, 「한국근대문학의 장르론에 대한 연구」(제명대 박사학위논문, 1986.) pp. 74~75. 참조.

3) 이재선, 「개화기서사문학의 세 유형」(한국어문논총, 又村姜樹馥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6.) 참조.

4) 조동일, 같은 책.

5) 이경선, 『한국의 전기문학』, p. 284.

울지문덕 당시의 고구려와 隋와의 형세와, 아울러 列國에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 울지문덕의 영웅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전기적 구성에는 미흡하지만, 주인공 이전의 시대현실과 주인공의 당시 현실과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통한 고난 극복 그리고 고난 극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구성을 통한 인물의 제시라는 점에서는 전기적 구성에 의거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신채호의 「李舜臣傳」은 주인공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삶의 행적 곧 인물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고난극복과 종말에 대한 서술을 통해 전형적인 전기적인 전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역시 같은 신문에 연재된 「崔邯統傳」은 작가가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창작된 탓인지, 미완의 작품이다. 「李舜臣傳」과 마찬가지로 논술식 서술에서 벗어나 인물의 출생부터 순차적으로 행적을 서술한 전기적 구성이다.

송양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된 장지연의 「익국부인전」은 국문체가 가지는 독자지향성 때문에 전기적 구성에 허구성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다. <구라파주 법판서국 아리안성 디방>의 <동이미>라는 마을의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난 <약안아이격>은 어려서 영국의 침입을 경험하면서 애국심을 배운다. 그리고 천신으로부터 <법국>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무술을 닦는다. 1428년에 영국이 <법국의 남방을 소탕코자> 침입하여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고 <아리안 성>을 비롯한 <몇몇 고을>만 남았다. 아리안성민들이 절망감에 떨고 있을 때, 17세의 약안은 부모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보고유 디방>의 <포다리고 장군>을 찾아가 병사 몇백 명을 얻어 <사이 데칠 폐하>가 있는 시룽촌으로 간다. 1429년 4월에 시룽촌에서 국왕을 만나 대원수여장군으로 봉함을 받아 아리안성에서 영국군과 싸워 대승을 한다. 다시 <리목 성>을 향해 진격하여 두번째 승리를 얻고,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하여 잃은 국토의 대부분을 회복한다. 1430년에 다시 <파리성>을 회복코자 진격하던 중 영국군의 계략에 빠져 <강비네성>에서 약안은 영국군에게 붙잡힌다. 결국 백성을 미혹케 한 죄로 약안은 1431년 9월에 화형을 당함으로써 「익국부인전」은 종결된다.

이처럼 「익국부인전」은 신채호의 전기소설과 달리 전형적인 전기적 구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모방과 서사적 성격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지단의 「라란부인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의티리국 아마치전」도 외국에서 영웅적 인물을 선택하여 전형적인 전기적 구성을 취한 작품으로서 「익국부인전」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영웅적 일대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전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선택된 소재로써 전기적 구성을 취했다고 해서 역사소설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성은 현재적 상징성⁶⁾과 함께 역사소설과 전기소설의 유사성이지만, 결코 역사소설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기소설 역시 전적으로 미래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현되어야 할 어떤 것이 과거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묘사되는 역사적 전도⁷⁾, 곧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모든 것이 역전을 통해 과거 속으로 옮겨져 있다는 현재적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성과 보편성이라는 전체성을 그려내기 위한 중도적 인물의 설정이 요구되는 역사소설⁸⁾과는 달리, 개화기에 나타난 일련의 작품들은

6) 역사소설은 작품의 소재가 어느 시대의 것이건 항상 현재의 시간에서 그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의 절실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창작과비평, 1967. 봄호) 참조.

7)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p. 336.

8) '운동의 총체성'이 성립되는 극은 삶을 거대한 갈등의 형상화에 집중해서 반영하면서, 모든 생활표출들을 이러한 갈등의 주위에 모이게 하고는 이들을 오로지 이같은 갈등관계 속에서만 생동할 수 있게 하면서, 인간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입장을 단순화하고 일반화한다. 따라서 형상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입장들에 대한 전형적 재현에 한정된다. 그러나 서사문학의 경우, 의미있는 계기들은 폭넓고 외연이 크며 포괄적인 총체성의 요소 내지 부분으로 형상화된다. 곧 '개관의 총체성'을 지향한다. 이때 중도적 인물의 지위는 격상된다. 특히 역사소설에서 중도적 인물은 그들의 개성이 비교적 불분명하다는 점, 뚜렷하고 결정적인 어떤 큰 결단을 위한 정열이 없다는 점, 서로 적대적인 진영들에 모두 접촉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운명을 통해서 그 사회의 개관적인 총체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소설의 주인공은 중도적 인물이며, 세계사적 개인은 필수적으로 부차적 인물이

일상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웅적 인물로 설정되고 있다. 이는 극도의 외향성⁹⁾을 지닌 인물일 따름이지, 결코 인물의 보편성을 구현함으로써 그 사회의 객관적 총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주의 문학으로서의 역사소설에 적합한 인물¹⁰⁾은 아닌 것이다.

乙支文德은實로嬰陽王朝의乙支文德이아니라檀君子孫의乙支文德이며高句麗의乙支文德이아니라朝鮮民族의乙支文德이며日時의乙支文德이아니라大東億萬世의乙支文德이니朱蒙王統은亡호얏스되乙支文德은亡치아닌者며金春秋는死호얏으되乙支文德은死치아닌者라其赫赫호精神이萬古에常存호야 (...)
萬一進化의公例로推호면中古時代의如地強悍호民族이今則優勝勢力이世界에橫絶호얏슬지어늘何故로每下愈況이此極에至호얏는가吾一今也에乃知라其國國民의勇劫優劣은傳호其國의 一二先覺英雄에鼓舞激勵의如何로視호야進退호는바로다.

-「乙至文德」(『한국개화기문학총서』 7권, pp. 90~91. 98~99.)

今에 往昔日本과 對抗호에足히我韓族의名譽를 代表호한호偉人을 求호건대上世에兩偉人이니高句麗廣開土王新羅太宗王이오近世에三偉人이니金方慶, 鄭地, 李舜臣이라凡五人에止호였도然이나其時代가近하고其遺跡이備호여後人이模範되기最好호는者는惟我李舜臣이是며惟我李舜臣이是로다.

-「李舜臣傳」(『단재 신채호全集一改訂版』, 中권, p. 357)

그런즉 약안의 총명영민함은 실로 천고에 드른 영웅이라(...) 약인이 홀로 이국성을 분발호여 몸으로 히성을 삼고 나라구호를 칙임을 스스로 담당호여 한범 고동에 온 나라 상하가 일제히 불호터 일어나 빈성의 귀운을 다시 쓸치고 다 망호 나라를 다시 회복호여(...) 슬프다 우리나라도 약은호른 영웅조절과 이 국충의의 너즈가 혹 잇는가

-「이국부인전」(『한국개화기문학총서』중 같은 책 6권, pp. 378~379)

위의 인용한 결말 부분에서도 나타나듯, 주인공들은 당시 외세의 침탈과 국권의 쇠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갈망한 의지의 표상으로서 구현된 역사적 영웅들이다. 따라서 역사소설의 원초적 형태나 역사소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한 양상으로서 다루기에는 어려우며,

된다.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거름, 1987.) pp. 112~114, 159~161. 참조.

- 9) 여기서 '외향성'이란 타인과 집단을 위해, 자기 자신의 민중을 위해 존재함을 뜻한다. 미하일 바흐친, 같은 책, pp. 320~321.
10) 김강호, 『역사소설론 시고』, 『국어국문학 (부산대 18·19집)』, 1982.

다만 전기문학적 특성 곧 전기적 구성을 취한 전기소설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② 논설적 어조의 변용

개화기의 전기소설은 그것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다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곧 논설문과 유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서사적 성격이 약화된 신채호의 전기소설과 전형적인 전기적 구성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사적 성격이 강화되어 있는 장지연의 「익국부인전」을 비롯한 일련의 신문연재소설들로 나누어진다.

신채호의 전기소설들이 갖는 논설적 어조는 그의 사상적 기저가 역사를 〈我와 非我的 鬭爭〉¹¹⁾ 곧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투쟁에서 이겨야만 노예화가 되지 않는다는 강렬한 민족주의와 민중투쟁혁명론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小説은 國民의 羅針盤이다. (...) 小説이 國民을 강한 데로 導하면 國民이 强하며, 小説이 國民을 弱한 데로 導하면 國民이 弱하며, 正한 데로 導하면 正하며, 邪한 데로 導하면 邪하니, (...)

—신채호, 「小説家の 趨勢」, 『신채호전집별집』, p.81

그는 소설을 국민을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는 효용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소설의 효용적 가치는 그의 강렬한 민족주의와 민중투쟁혁명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일련의 전기소설은 이러한 소설적 인식에 대한 실천이며, 그 목적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민중적 참여의 유도에 있다.

「乙支文德」은 특히 이러한 작가의 인식이 두드러지는데, 전기적 구성이 최소한도로 약화되어 있다는 점과 작가의 관념적 개입이 극도로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주인공인 을지문덕의 순차적인 삶의 행적을 서술하기보다 주인공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을 영웅적 능력으로 극복해 나간 영웅성 표출에 주력한다. 그러나 서사적 재현 방식에 대한 인식 결여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한 극적 구조화로 표출되지 못하고, 작가적 개입을 통해 논평이나 주석이라는 논설적 어조가 극단적으로 강화된 주석적

11)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 신채호 전집-개정판』 상권, p.31.

서술상황에 의지하고 있다.

故로我權이未墮어던劍과血로此를保護호而已이며我權이已墮어던劍과血로此를索還호而已오又或慘澹荆棘에日暮道遠하야會稽의恥를不得不暫忍호境遇이면日日臥薪하며時時嘗膽하야劍과血로全國人을喚起호而已호彼卑劣一派는每日雍容緩步하야幸福을求하야하며溫柔服從하야機會를待하야하느니라此는我의銳氣를自滅하고良心을自欺호이니天下蒼生을禍호者ㅣ엇지此言이아닌가憶라何以하면乙之文德其人者가復出하야此輩을廓清호고

-「乙之文德」 pp. 45~46

이미 빼앗긴 우리 민족의 권리를 되찾는 길은 오직 적국에 대해 칼과 피로써 대항하는 독립정신뿐이라는 독립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설적 어조와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적 인물의 출현을 갈망하는 의지가 작가적 개입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수나라의 세력 앞에 고구려 주변의 열국들은 굴복했으나 고구려만은 굴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자주적 국방을 이루었다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관념적인 영웅사관 등은 「乙之文德」이 결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재현에 충실한 전기나 이를 바탕으로 그 의의를 논리적으로 찾으려 한 논문의 성격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작가 자신도 <전기도 아니오 논문도 아니>¹²⁾라고 자평했듯이, 「乙支文德」은 개방적 장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전기적 요소와 논설적 요소가 혼류하고 있음으로 인해 서사적 성격이 최소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석적 서술상황을 통해 시대적 이상과 요구를 역사적 상황 설정 아래 영웅적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음으로써 그 최소한의 서사적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최소한의 서사적 성격은 「李舜臣傳」이나 「催都統傳」에 와서 다소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두 작품은 「乙支文德」과는 달리, 주인공의 삶의 행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역사 논문을 대하는 듯한 논설적 어조가 변용되어 당대적 삶의 관련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물론 작가적 개입을 통한 관념적 서술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한 결과의 산물일 것이다.

「催都統傳」은 「李舜臣傳」과 비교할 때, 「乙支文德」의 논설적 어조에 더욱 접근해 있다. 작품의 초두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한다든지, 최영이라는 주인공의 영웅성에 대한 논설적 가치평가라든지, 당시의 역사적

12) 신채호, 같은 책, 하권, p. 183.

상황과 七可賀와 五可吊에 대한 긴 설명 등이 그러한 특징에 속한다. 그러나 「李舜臣傳」은 현재적 삶에서 적대 세력과 작품 속에서 설정된 적대 세력이 같은 일본이라는 동일성과 아울러 시기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대가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더욱 직접적인 효용성을 갖는다. 이 직접적인 효용성은 작가로 하여금 장황한 논설적 어조를 완곡하게 변용할 수 있게 하였고, 작가적 개입 욕구도 훨씬 감소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장지연의 「이국부인전」을 비롯한 일련의 신문연재소설들은 전형적인 전기적 구성에 의거하여 서술한 까닭으로 논설적 어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인물의 행위가 구조화되면서 서사적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전기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국부인전」은 작가의 사상적 성격이 신채호와 유사한 애국계몽운동가라는 점에서 볼 때, 소설에 대한 작가적 인식은 장지연이 더욱 확고했음을 짐작케 한다. 전기적 구성이라는 구성상 특징을 제외한다면 사건의 재현에 비교적 충실한 일종의 사건소설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표제도 〈新小説愛國婦人傳〉이라고 되어 있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신채호의 작품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논설적 어조는 의식적으로 선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의 재현보다는 도리어 소설적 흥미의 증대를 위한 허구성에의 인식이 증대됨으로써 담화상황을 중심으로 환상성까지 가미되고 있다.

홀연 어디서 약안을 불러 가르디 약안아 네가 넘어한홍을 타 방탕이 놀지
 마라 ㅎ거늘 약안이 깜짝 놀라 수면을 살펴 보아나 사람의 그림조도 업는지라
 정히 의심ㅎ여 머리를 들어 보니 (...) 구름 속에 무수ㅎ련 번신이 공중에 둘러
 서고 그중에 세 분 번신이 서서 옥관 홍포로 괴상이 엄숙ㅎ련 약안을 크게
 불러 가르디 법국에 장차 큰 란이 잇슬지라 네가 맛당히 구원ㅎ라(...) 약안이
 황홀ㅎ여 마음 속에 생각ㅎ되 이것이 꿈인가 ㅎ더니(...)

—「이국부인전」 pp. 342~344.

비록 이러한 환상성이 고소설 중 환몽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기법을 채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소설에서 인물 행위의 개연성과 선택된 영웅적 인물이라는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 담화적 국면을 활용하고 있음은 괄목할만한 특징이다. 또한 신채호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종결액자를 가지고 있

는데, 신채호의 작품에서 종결액자가 단순히 내부액자에 대한 현재적 평가를 내리는데 머물고 있는 반면, 「익국부인전」의 종결액자는 현재적 평가와 아울러 내부액자에서 소설적 흥미의 증대를 위해 기법적으로 구현한 환상성을 깨뜨림으로써 관념적 영웅이 아닌 현실 속에서 주체적 노력에 의한 영웅이 탄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로 상제의 명령이 었지잇스며 변신의 분부가 었지 잇스리오 그런즉 약
안의 총명영민흥은 실로 천고에 드른 영웅이라

—「익국부인전」 p378.

그러나 영웅적 인물의 형상화를 위해 다소 모방적 관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결액자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애써 구현한 환상성마저 의도적으로 깨뜨려버림은 작가가 소설의 사실성을 강조한 애국계몽운동가라는 사상적 측면 때문이다. 고소설이 〈皆荒誕無稽하고搖靡不經하야適足히人心을蕩了하고風習을壞了하야政敎와世道에關하야爲害不淺〉¹³⁾한 것이라고 배격하고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해야 한다는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소설개혁론은 역설적이게도 소설에 부여되었던 흥미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곧 「익국부인전」의 고설적 특징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환상성의 도입을 비롯하여 작품 서두에서 주인공의 출생과 시대적 배경을 서술한 점, 10회의 회장식 구성을 취한 점, 각 장의 첫머리에서 반드시 〈각설〉이나 〈차설〉등의 상투어의 반복을 통해 장면 전환을 꾀한 점, 직접적인 묘사보다 강화되어 있는 주석적 서술상황 등을 통해 볼 때¹⁴⁾ 도리어 표채의 〈신소설〉이라는 명명이 무색할 정도로 고소설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계몽운동가인 작가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고소설을 형식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채호의 경직된 교도적 효용론에 입각한 소설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흥미 증대를 통한 정서적 감동이라는 효용론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작품의 내부액자에서는 고소설적 형태를 계승하면서도 종결액자에서 고소설적 형태와 거리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한 작가의 역설적 태도는 논설적

13) 박은식, 「瑞土建國誌」의 역자 서문(대한매일일보사, 1970.)

14)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일조각, 1972.) pp. 206~244. 참조.

어조의 변용을 가능하게 한다. 주석적 서술상황을 통해 서술되는 내용은 주인공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나 주인공의 영웅성에 대한 논설적 가치평가에서 벗어나, 주로 주인공의 행위구조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평이나 주석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부(detail)를 위해 봉사하는 서술상황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차설 이 켜 연설홀 귀한이 이르매 약원슈가 군수를 불러 연설장에 나아
가 포치를 정제히하고 식장을 슈축하니 그 연설장은 십북광활하여 가히 수
십만명을 용납할만하고 조흔 연설터는 그중간에 잇는디 턴싱으로 된 조그마흔
돈티라 돈티 우에는 나무 수풀이 잇서 푸른가지는 하늘을 더뎠고 무르 녹은
그들은 일광을 가렸는지라.

-「이국부인전」 pp. 360~361

물론 이러한 논설적 어조의 변용과 함께 흥미성의 증대를 위한 작가적 노력은 신채호의 작품처럼 국한문 혼용체가 아닌, 국문체라는 문체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국한문혼용체는 계층상 중인 이상을 내포독자로 설정하였음을 뜻하고, 국문체는 중인 이하의 민중들을 내포독자로 설정하였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친 관념적 서술은 지향해야 했을 것이고,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재현만으로는 그들에게 작가가 의도하는 민족적 독립정신의 고취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국계몽운동가인 장지연의 고소설적 형태를 작품 속에 수용하고 나아가 논설적 어조를 완곡하게 변용하고 세부 묘사를 강화함은 일종의 서술적 전략으로 파악해야 한다.

(2) 담화소설

Halliday에 의하면,¹⁵⁾ 언어구조에는 세 가지 기능적 층위가 존재한다. 즉 間人格的(Interpersonal) 기능과 텍스트(Textual) 기능, 그리고 관념적(Ideational) 기능의 층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 층위들은 담화·텍스트·

15) M.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Edward Arnold Ltd., 1978.) pp. 64~69, 112~128 참조.

내용의 범주와 서로 상응한다.¹⁶⁾ 이들 중 간인격적 기능 층위에 상응하는 담화(discourse)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언어적 전달이다. 작가적 개입으로써 발신자의 잠재적 의미를 기술하는 간인격적 기능에 의해 성립되는 사회적 문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담화소설이란, 작가가 의도하는 전언(傳言)이 허구적 발신자를 통해 지배소로 가지게 될 때 가능한 소설의 하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곡과 구별되는 점은 인물의 행위구조는 극소화되고 다만 담화상황의 구현을 위해 형식적으로 인물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적 특징인 세부마저 중시되지 않음으로써 극과 소설의 중간적 장르라는 변두리성 혹은 일탈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설적 변종 양식을 담화소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 소설들 중에서 이른바 토론체소설과 정치소설류에 속하는 대다수의 작품들은 인물이 작가의 편의에 의해 등장하는 무성격성을 지니며 사건은 단순한 시간적 경과나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보일 뿐 배경의 기능적 작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거나¹⁷⁾, 서사문학다운 전개는 찾을 수 없고 논설이라야 더 잘 어울리는 내용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나타냈다는¹⁸⁾ 등의 평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성의 결여는 일부 논자로 하여금 연설의 산문화¹⁹⁾, 시사토론문²⁰⁾, 또는 소박한 민속극의 한 형태²¹⁾로 그 장르를 파악하게끔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서사성의 결여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물과 세부에 대한 기능이 편의적으로 극소화되어 있는 반면, 담화적 국면이 극대화되는 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대화든 토론이든 아니면 연설이든 간에 이들 담화적 국면이 작품에서 어느 정도로 극대화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기능적 장치로서 담화상황들이 구현되는 방법을 고찰할 때 담화소설이라는 하위양식적 분류의

16) Roger Fowler, *Linguistics and the Novel*, [김정신, 『언어학과 소설』 (문학과지성사, 1985.)] pp. 66~67. 참조.

17) 김중하, 「개화소설의 문학사회학적 연구」(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85.)

18) 조동일, 같은 책, p. 319.

19) 김윤식, 「개화기문학양식의 문제점」(동아문화 제12집, 1973)

20) 조동일, 같은 책, p. 321.

21) 이재선, 「한말의 신문소설」, 『春秋文庫』 (한국일보사, 1975) p. 46.

타당성도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① 담화적 형태

대화체 또는 토론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自由鍾」·「車夫誤解」·「쇼경과 안증방이」 문답」·「夢見諸葛亮」·「鄉老訪問醫生이라」·「향각담화」·「시사문답」²²⁾ 등을 들 수 있고, 연설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病人懇親會錄」·「경세종」·「蠻國大會錄」·「금슈회의록」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 토론체인 「自由鍾」, 「車夫誤解」와 연설체인 「病人懇親會錄」, 「경세종」, 「금슈회의록」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자유종」²³⁾은 리매경의 생일날에 신설현과 홍국란 그리고 강금운 등의 여러 부인들이 모여 신설현의 사회로 토론을 시작하는 데, 작품의 서두에서 유일하게 서술자가 개입하여 남자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는 여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요약하고 있다.

런디간 만물중에 동물되기 회한하고 천만가지 동물중에 사물되기 극난하다.
그것치 회한하고 그것치 극난한 동물중 사물이되야 압제를 밧아 주유를일
케되면 하노이쥬신 사물의 직분을 직하지 못호이어날 함을며 사롭사이에
너주되야 남주의 압제를 밧아 주유를 빼앗기면 엇지 회한코 극난한 동물중
사롭의권리를 스스로 버림이안이라호리오

-「자유종」 p. 5

물론 이 서두마저 토론을 제기한 신설현의 담화로 볼 수도 있으나, 첫문장이 완전한 문어체로 되어 있는 점과 이어지는 신설현의 담화의 내용에서 비로소 〈나는 벵날 티평시 티에 숙부인까지 밧쳐더니 지금은 가련한 민족중의 혼 몸이된 신설현이올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의 개입으로 인한 요약적 진술은 아닐지라도, 서술자의 개입을 미미하나마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경] 쌀쌀우으며 나는 어제밤에 뒤편대국의 기명호를 꾸었소 (p. 40)
여러부인중에 혼부인이 니려나서 말호되 나는 지식이엿서 연호야담화는

22) 김종하님은 「개화기소설연구(1)」(부산대문리과대학 논문집17집, 1978)에서 이들을 토론체소설로 파악한다.

23) 「한국개화기문학총서」중 같은 책 4권.

잘못했거니와 스상이야 엇지다르며 꿈이야 못꾸엇겄소 나도 어제밤에 요혼
몽수가 있스나 밭서 닭이올어 밤이드렀스니 이다음에 리약이흐오리다. (p. 44)

이같은 서술자의 미미한 개입양상은 작가가 의식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했음을 알게 한다. 서두의 요약적 진술은 작품의 주제가 갖는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에 머물고 있으며, 토론자가 설현에서 매경으로 전환되면서 토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알쌀우스며〉라는 지문적 성격의 짙막한 개입을 한다. 끝으로 종결부분에서 네 명의 부인들이 밤새껏 나눈 토론을 듣고 있던 나머지 여러 부인들 중의 한 부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부인중에 혼부인이 니러나서 말호되〉라는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을 종결짓기 위해 토론자에 속하지 않는 다른 한 부인을 관여시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술자에 의한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이다.

이처럼 극도로 자제된 서술자의 개입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구조를 극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형태상으로만 본다면 작가적 개입이 강화된 주석적 양상이 아닌, 인물들의 현재화된 토론이 극적으로 제시된 모방적 양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설정이 작품에서 행위화되지 못하고 다만 작가가 의도한 관념적 전언을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 성격의 발전이라든지 창조된 인물의 생생함은 전혀 존재치 않는다.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인물은 언어·묘사·행동·대화·장면과 다른 인물과의 상호작용 등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면²⁴⁾, 「自由鍾」에서 설정된 인물들은 묘사나 행동 그리고 장면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장식적 기능만 수행할 따름이다.

이같은 행위화되지 못한 채 장식적 기능에 머물고 있는 인물 설정과 극도로 자제된 서술자의 개입 양상은 같은 대화체로 된 「車夫誤解」²⁵⁾도 마찬가지다. 「自由鍾」만큼 서술자의 개입이 극도로 자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진술이나 논평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다만 대화자를 전환시키기 위한 설명적 개입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모쳐 병문〉에서 차부들 곧 인력

24) R. V. Cassill, Writing Fiction(New York, 1963), p. 240

25) 「대한매일신보」 150호 (1906. 2. 20)부터 161호 (1906. 3. 7)까지 연재분.

거군들이 모여 앉아서 〈보고들은 말을 서로 논란〉하면서 시작되는 「車夫誤解」에서, 대화에 참여한 자들은 인력거군 세 사람과 구체화되지 않은 세 사람 정도이다. 당시 정치적 시사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문답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인물 설정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여전히 장식적 기능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 ㄱ. 기중에 인력거군 [A]이 혼 아이 ㄱ로디 (…)
- ㄴ. 그 말을 듯고 일좌가 박장 티소히여 왈 (…)
- ㄷ. 인력거군 [A]이 스레히여 왈 (…)
- ㄹ. 여러 사람들이 더욱 티소히며 왈 (…)
- ㅁ. 인력거군 [A]이 또 혼 가가티소 왈 (…)
- ㅂ. 젓히 잇던 자이 무려 같오디 (…)
- ㅅ. 인력거군 [B] 왈 (…)
- ㅇ. 인력거군 [C] 이 툃식히여 왈 (…)
- ㅈ. 인력거군이 듯기를 다히고 길이 툃식히여 왈 (…)

(‘A~C’는 필자가 구분)

위의 대화 전환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화에 참여하는 세 명의 인력거군을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각 인물의 성격이 구체화되지 않으며, 그외 세 명의 대화 참가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좌〉, 〈여러 사람들〉, 〈젓히잇던자〉등으로 추상화시켜 놓고 있다.

연설체 작품인 「病人懇親會錄」·「경세종」·「금수회의록」²⁶⁾ 등은 인물 설정이 행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대화체 작품들에 비해 구체화되고 있고 서술자의 개입 양상도 더욱 적극성을 띤다. 이는 대화에 비해 연설은 청자들을 설득시켜고자 하는 작위성이 더욱 강한 논설적 어조를 띠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득시켜야 한다는 연설의 목적성은 연설자나 그 청자들을 불구자나 짐승들과 같은 비일상적 인물들의 설정을 요구하게 한다. 인물의 행위화가 구현되지 못한 가운데 만약 연설자나 그 청자들이 일상적 인물들이라며 당대 정치적

26) 「병인간친회록」은 『개화기문학의 재인식』(지학사, 1987) 중 자료편, 그외는 『한국개화기문학총서』 4권을 텍스트로 한다.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나 강한 비판 및 주장이 용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비일상적 인물의 설정을 통한 연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계몽대상인 민중이라는 내포독자와의 일체감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설정의 구체성과 함께 도입액자의 형태로 구성된 이들 작품의 서두 부분은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로 되어 있으며, 내 부액자에서도 서술자의 개입이 대화체에 비해 훨씬 강화되어 있음으로써 서술과 모방이 공존하고 있는 혼합화법이라는 소설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회장) 지금규칙제정위원 두분만추천하기로 동의재청이 되었스니 의견말 삼하시오

(회원) 의견업소 가부

회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이된후 추천할방범을 회중에물으즉(...) 엇던 사람은 반병어리를 천하고 엇던사람은 세머리장이를천하노지라

—「病人懇親會錄」 p. 283

운순흔 티도로 니러선 양 회장의 모양을 보니 과연 친목 하는 연회의 회장이 될만흔거슨(...) 노준 목 소리와 혼연흔 안식으로 좌우를 둘러 보면서 하노말이 우리가 모힌 뜻슨 여러 회원들도 임의 짐작하실듯 하나 두어말노 설명하오니 그대로 드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경세종」 p. 515

순벽소리에 연단에 내려가니 또 혼편에서 아릿답고도 밋살스러운 소리로 회장을 부르면서 쌍똥쌍똥 연설단을 향하야 올라가니(...) 간스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여호을시다 점자나신 여러분 모히신티 감히 나와서 연설하옵기는 방자흔듯 하오나(...)

—「금슈회의록」 pp. 462~463

이처럼 강화된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의 내용이 연설회를 개최하고 진행해 나가는 형태적 성격 때문임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곧 대화나 토론의 경우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도 인물들 상호간에 하나의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으나, 연설회의 경우는 사회자 한 인물만으로는 청중들의 반응과 연설할 인물의 묘사나 등장 등을 표현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설회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서술자는 적극적으로 작품 내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담화적 전략

인물의 행위 구조가 결여된 채 장식적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게 된 것은 대화나 토론 또는 연설의 형태로써 작품을 구성하려 한 작가적 의도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서술자의 개입 양상은 작품의 형태가 대화 또는 토론이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은 이들 작품들을 주석적 양식으로 분류하기에, 더구나 담화소설로 유형화시키기에는 더욱 어려움을 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도 서술자의 개입 양상이 작품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곧 텍스트내의 발신자인 대화자 [토론자]나 연설자가 수신자인 청중에게 작가가 의도한 전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담화적 전략으로 파악할 때 양식적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토론체 작품들의 경우, 먼저 「自由鐘」은 네 명의 부인들이 밤새껏 나눈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토론 내용은 근대적 학문의 필요성, 국문 사용에 대한 찬성론·반대론·중도론 등의 논의, 여성교육의 중대함 등에서부터 민족독립사상의 고취에 있는데, 그 토론 내용은 근대적 학문의 필요성, 국문 사용에 대한 찬성론·반대론·중도론 등의 논의, 여성교육의 중대함 등에서부터 민족독립사상의 고취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개화사상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車夫誤解」는 당시 중인계층 중에서 상부계층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가능한 인력거꾼들이라는 인물설정을 통해 문답식으로 구성된 작품인데, 상부계층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현실이 모순성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자각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첫번째 인력거꾼이 〈남북촌 재상가〉와 〈각처 연회하나 연설하는 곳〉에서 들었던 〈정부 조직〉이란 말을 마소의 먹이를 뜻하는 〈쵸-집〉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된다. 그 대화 내용은 크게 네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당시의 타락한 경제현실이고, 둘째는 친구화폐 교환으로 〈시정市井〉이 도탄에 빠진 경제현실이며, 셋째는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라며 통감정치를 비판한다. 마지막 단락은 네째 단락을 결말부분으로서, 대화를 끝까지 듣고 있던 한 인력거꾼이 통감정치의 실상을 깨닫고는 탄식하며 〈자탄가〉를 노래부른다.

이처럼 토론 또는 대화는 발화자의 전언이 절대적 권위를 갖기 어려울 때 가장 효과적인 언어형식이다. 발화자의 전언이 청자에게 전달되면서 다시 청자는 새로운 발화자가 되어 새로운 전언을 전달한다는 상호접촉의 과정을 통해 논의의 확대와 일치점을 모색하게 한다. 이는 결국 작가가 의도하는 다양한 관념적인 전언을 전달하기 위해 담화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작가는 작가적 논평의 절제를 통해 작품내에 깊숙히 개입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실은 형상화되지 못한 인물들을 통해 작가적 논평을 위장했을 뿐이다. 담화적 국면으로만 이루어지는 인물들간의 상호소통과정이 위장된 논평임은 인물의 행위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인물의 필요성은 대화나 토론의 자연스러운 전환이나 최소한의 서사적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설정만으로 작가가 의도한 관념표출은 충분히 이루어지기에 구태여 별도의 작가적 개입은 필요하지 않은 대화체 작품들과는 달리, 연설체 작품들은 적극적인 작가적 개입이 두드러진다. <병신들 간친회를 발고하고>자 <병인간친회취지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되는 「病人懇親會錄」은 회의 조직을 위해 임원들을 선출한다. 곧 회장은 <청맹관아모씨>, 임시서기는 <병어리아모씨>, 규칙제정위원은 <반병어리>와 <체머리장이>가 선출되어 <병인간친회>의 형태를 갖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회발기한 괴념을 삼기> 위해 토론을 제의하자 <결름발이>, <눈하나못보는사람>, <언청이>, <곰배팔이>, <안진방이>, <난장이>, <귀먹어리>, <배부장이>, <흑부리>, <암못보는장님>, <짚사둥이> 등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와 연설을 한다. 그 내용은 주로 관리와 같은 정상인들의 탐욕스럽고 부패한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나아가 교육의 중요성과 실업의 발달 등의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경제중」은 도입액자와 내부액자로 이루어진 액자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인데, 도입액자에서 유산객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장황하게 주고받고 있을 때, 숲에서 <금수와 곤충>들이 모여서 <원유(園遊)회>를 개최하는 장면이 극적으로 전달되는 금수와 곤충들의 연설부분이 내부액자이다. <양 회장>의 기독교적 사상에 의거한 현실비판과 침묵회의 취지 설명이 있는 뒤, 14명의 의인화된 금수·곤충들이 나와 연설을 시작한다. 사슴은 <자식된 도리와

국민된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원숭이는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판관을, 가마귀는 <궁핍한 마음 업>음을, 제비는 법도를 무시함을, 올빼미는 쇠국주의를, 고슴도치는 빛을 무서워 않음을, 박쥐는 기회주의를, 공작은 <의복사치>를, 나비는 음란함을, 개암이는 게으름을, 자벌레는 공익보다 일신의 안위만을 돌봄을, 나귀는 <아모 사업도 업시 잇다가 죽>음을, 쟁거루는 <색남색녀>들의 정욕을, 호랑이는 <정욕으로 탐>함을 비판한 후 폐허와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작품은 종결된다.

「금수회의록」은 전형적인 액자구성으로서 도입·내부·종결액자가 모두 존재한다. 인간이 보고인물이 금수들의 회의에서 연설을 청취하고 자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내부액자에서는 모두 8명의 의인화된 금수와 곤충들이 연설을 하는데, 까마귀는 효의 부재를, 여우는 외세에 의탁하여 <제나라를 망하고 제동포를 압박하는> 간사함을, 개구리는 남을 속이고 <턴하 단사를 모도 아는> 체함을, 벌은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음을, 개는 분별력이 없음을, 파리는 간사함을, 호랑이는 험악하고 흥폭한 마음을, 원앙은 음란함을 각각 비판하고 폐회를 한다.

이처럼 연설체 작품들은 찬반론이 요구되지 않는,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을 의인화된 인물들의 연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토론의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현실비판과 각성이 이루어지는 반면 연설은 다양한 주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청자들의 공감은 박수 소리로써 표현한다. 따라서 연설의 경우, 작품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발화자와 청자가 서로 교환되는 상호접촉과정은 볼 수 없다.

결국 토론체거나 연설체거나 모두 작가가 의도하는 전언을 발화자와 청자간의 담화상황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인물은 전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무성격적 인물일 뿐이다. 이는 전언 곧 관념표출을 위해서 설정된 인물은 행위구조가 필요치 않다는 작가적 인식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의도한 사회적·정치적 논평을 형식적으로 설정된 무성격적 인물로써 토론이나 연설의 형태로 전달함은 주석적 양상의 한 변용이며, 이를 위해 담화적 국면을 의도적으로 건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마무리

장르 해체적 또는 개방적 장르관을 요구하는 개화기 소설 연구는 신·구 소설이 혼류하며 서로 넘나들던 과도적 특징과 현대소설의 기점이 되는 시기라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논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양식적 분류에 대한 의도적 오류는 대개 무비판적으로 답습되어 왔다. 물론 일부 논자들에 의해 이같은 오류의 대개 무비판적으로 답습되어 왔다. 물론 일부 논자들에 의해 이같은 오류의 반성이 이루어졌으나, 그 역시 일관된 층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양식적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본고는 특히 양식적 혼란이 심한, 곧 장르 혼합이나 장르 확대 또는 장르관의 결여가 두드러진 이른바 역사전기소설·토폰채소설·정치소설 등으로 불리워지는 일부 작품들을 대상으로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대상 작품들이 대표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선택적 오류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시대의 신소설류에 대한 고찰 역시 함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개화기 소설의 장르 해명은 보편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소설류와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일련의 작품들에 대한 장르론적 고찰은 개화기 소설의 보편적 연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도리어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채호·장지연·박은식 등에 의해 창작된 전기소설은 모두 연대기적 시간에 의한 전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실존한 구국적인 역사적 영웅을 인물로 내세워 당대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영웅출현 갈망 의지를 표출한 소설이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실에서 선택된 소재로 형상화했다고 해서 역사소설로 보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전기적 구성이 강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편성이 상실된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구성함으로써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작가적 의지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작가의 사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형태가 전기소설이었기에 자연히 논설적 어조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논설적 어조는 인물의 행위구조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평이나 주석의 형태로 변용이

나타나며, 이는 주석적 서술상황을 한층 강화시켜준다. 특히 문체에 있어서 국한문혼용체를 선택한 전기소설은 중인 이상의 식자층을 내포독자로 설정함으로써 흥미성 증대를 위한 고려나 논설적 어조의 변용이 미미하나, 국문체를 선택한 전기소설은 민중의 효과적인 계몽을 위해 관념적 서술을 지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흥미성 증대를 위해 논설적 어조는 세부 묘사의 강화로 그 변용이 두드러진다.

둘째, 이른바 토론체소설이나 정치소설로 불리워지는 일련의 작품들은 대부분 언어의 담화적 국면이 전경화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전언의 전달, 곧 담화상황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인물의 행위구조나 세부마저 극소화된 담화소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담화소설은 그 전언의 전달 형태가 대개 두가지로 구별되는데, 토론 [대화]과 연설이 그것이다.

인물은 토론이나 연설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 동원된 장식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서술자의 개입은 자제된다. 특히 토론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양상이 극단적으로 자제되는데, 이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현실비판과 각성이 이루어지는 토론의 특징 때문이다. 반면에 연설체 작품은 인물의 기능이나 서술자의 개입이 다소 적극성을 띤다. 이는 토론에 비해 연설은 사회자에 의해 연설회가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청중을 상대로 다양한 주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는 작위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제기를 통한 효과적 설득 내지 공감을 위해 연설자나 청중들을 동물이나 소외되고 약한 인물들로 설정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관념 표출을 위해 담화소설은 반복되는 담화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체 작품은 발화자의 전언이 절대적 권위를 갖기 어려우므로 상호접촉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연설의 성격상 연설체 작품은 일방적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면서 상호접촉의 과정은 겨우 청중들의 박수 정도로만 표현될 뿐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